

한국판 청소년용 공격신념 척도(K-BSAS)의 타당화 연구*

정 유 진[†]

유 미 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Slaby와 Guerra(1988)가 개발한 공격신념 척도(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한국판 청소년용 공격신념 척도(Korean Adolescent's 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 K-BSAS) 개발을 위해 서울, 경기, 경북, 경남에 위치한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 851명 중 만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6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통해 K-BSAS는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공격행동의 정당성으로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최종 총 9문항으로 결정되었다. K-BSAS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비교에서 성별에 따라 공격신념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공격신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K-BSAS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공격행동의 정당성과 총점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K-BSAS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K-DSQ의 공격성 도식 척도, K-CATS의 적대적 인지 척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K-BSAS는 공격성 도식 척도, 적대적 인지 척도와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격행동집단과 비행집단에서 K-BSAS의 점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BAS-S의 T점수 60점을 기준으로 공격행동집단과 일반집단으로 구분한 뒤 K-BSAS 점수를 비교한 결과, 공격행동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LDQ의 상위 10%tile을 기준으로 비행집단과 일반집단으로 구분한 뒤 K-BSAS 점수를 비교한 결과, 비행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K-BSAS의 신뢰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판 청소년용 공격신념 척도의 타당성을 규명하였으며, 이 척도가 공격행동집단과 비행집단을 선별하는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한국판 공격신념 척도, 공격신념, 공격성, 공격행동, 신념, 타당화

* 본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부임.

† 교신저자 : 정유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 박사과정,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52
E-mail : children8007@naver.com

청소년기는 자율과 독립욕구, 역할 갈등, 현실과 이상의 불균형 등 커다란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발달상 과도기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비행 등의 문제행동에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9년에 조사된 전체 소년범죄 유형 가운데 폭력범죄는 29%로 재산범죄(40.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대검찰청, 2009).

이러한 청소년 공격행동은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Farrington, 1978; Osgood, 1988), 최근 학계에서는 청소년 공격행동의 예방과 중재를 위해 그 원인을 밝히고자 노력해 왔다.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 공격행동의 요인은 낮은 자존감, 공격성향, 충동성, 자기통제력, 인지과정의 왜곡 등이다(곽금주, 김하연, 윤진, 1991; 김재엽, 이효정, 강민지, 2007; 도금혜, 최보가, 이지민, 2006; 도기봉, 2008; Mehrabian, 1997). 그중 인지과정의 왜곡은 공격성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사회인지적 입장이다. 이는 공격행동의 인지적 기저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공격반응을 일으키거나 규제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은 공격행동을 하는 아동의 인지적 기술 결함에 대해 밝혔는데, 대표적인 이론이 Dodge의 사회정보처리모델과 Huesmann의 정보처리모델이다.

Dodge(1986)는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인 사회정보처리모델(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을 제시하며, 공격행동의 유발이 단서나 의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즉 개인은 사회적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를 처리할 때, 단서의 부호화단계, 해석단계, 반응결정단계, 반응실행 및 평가단계, 그리고 목적명료화

의 여섯 단계를 따른다고 하였다. 만약 어떤 개인에게 이들 단계 중 어느 한 단계라도 결함이 생기게 되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공격행동 또한 이 단계 중 어느 한 단계 혹은 모든 단계가 결함을 가질 때 야기된다(Dodge & Price, 1994).

한편, Huesmann(1988)의 정보처리모델은 Dodge의 설명과 유사하지만 인지적 도식인 스크립트의 개념으로 공격행동에 대한 인지적 결함을 설명하였다. 그는 초기 발달부터 학습되어 왔던 행동 프로그램에 의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이 통제를 받는데, 이 프로그램을 기억에 저장된 인지적 도식(스크립트)이라고 하였다. 이 도식은 주변 환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에 대응하여 어떻게 행동하며, 결국에는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곽금주, 1993). 그리고 인지적 도식에 의해 제안된 행동은 다시 개인이 가진 자기규제신념을 통하여 여과된다.

이때 자기규제신념은 부적절한 행동을 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끼친다. 즉 자기규제신념은 적절한 인지적 도식의 사용을 자극할 수 있는 기준신념을 말하며, 이는 곧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일반화된 신념의 형태가 될 수 있다(Huesmann & Guerra, 1997).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과 연결되나 자신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준과 다르다. 또한 이는 허용되고 금지된 행동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손지영, 2003; Huesmann & Guerra, 1997).

유사하게 Slaby와 Guerra(1988)도 Dodge의 사

회정보처리모델을 확장하여, 공격행동의 사용을 지지하는 일반화된 신념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공격신념이 공격행동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였고, ‘공격행동은 정당하다’, ‘공격행동이 자존감을 높여준다’, ‘공격행동은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게 해 준다’, ‘피해자는 공격을 당할 만하다’, ‘피해자는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신념의 5개 하위척도로 구체적인 공격신념의 개념을 정립하고, 척도를 고안하였다. 이들은 Dodge의 사회정보처리과정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processing)’이라면, 공격신념은 ‘내용(contents)’이라 언급하면서, 인지의 내용과 과정 둘 다를 탐색하는 사회적 인지 발달의 통합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격신념이란 공격행동의 수용가능성과 수용불가능성에 대한 개인 고유의 인지를 의미한다(손지영, 2003; Huesmann & Guerra, 1997). 즉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공격행동이 정당하고 가치로운 도구라고 믿는다면, 이러한 신념은 그들의 공격행동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Andreas & Watson, 2009). 또한 공격신념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주 관찰하거나 자신의 행동 후에 뒤따랐던 결과 등 개인의 이전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만약 주변인들이 공격행동을 자주하여 이를 아동이 관찰하게 된다면, 아동은 공격행동이 타당하다는 내면화된 기준신념을 발달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공격행동을 한 후 긍정적인 보상을 자주 받았다면, 공격행동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곽금주, 김하연, 윤진, 1991).

이와 같이 공격신념은 아동이 발달하는 동안 가정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학습될 수 있는데, 실제로 Huesmann과 Guerra(1997)의 연구에서도 공격신념과 공격행동은 초등학교 저학

년 시기에 가장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국내의 공격신념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Crick과 Dodge(1994)가 적대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적대적 신념이 없는 아동들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손지영(2003)이 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신념과 공격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공격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공격반응을 더 적합한 반응으로 평가하여 행동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라(1999)는 아동을 반응적 공격성과 비반응적 공격성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이때 반응적 공격성과 비반응적 공격성은 모두 공격신념과 정적상관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용 공격신념 척도는 외국 척도들을 조합하여 사용하였고, 특히 윤리라(1999)는 국내 아동들에게 적합한 공격신념 척도 타당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공격신념 연구들도 다양한 척도로 연구하지 않았으며, 주로 Huesmann과 Geurra(1997)가 고안한 기준신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Huesmann과 Geurra(1997)는 아동이 공격신념을 평가할 때, 정답을 표기하려는 도덕적 신념에 예민하여 사회에서 바라는 답을 작성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의 신념은 성장하면서 급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나이 어린 아동일 경우에는 어떠한 안정적 신념조차 갖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아동은 자신의 고유한 신념을 평가하기보다 상황적 단서로 인한 반응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Slaby와 Guerra(1988)는 인지 과정과 신념에 관한 연구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는 점을 비판하며, 청소년기로 그 대상을 확장하였다. 이들은 만 15-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신념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비공격적인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공격신념을 보였다. 또한 Andreas와 Watson(2009)은 평균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7년간 공격신념에 대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격신념을 가진 아동은 7년 간 점차 더욱 공격적이 되었으며, 이는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공격신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였다.

공격신념은 아동기 동안 형성되며, 일단 형성되면 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uweidnane & Huesmann, 1999).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형성된 공격신념이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어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신념과 공격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에 따르면, 공격신념은 공격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격신념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을 대상으로 그 중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공격신념이 안정화되어 공격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중재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 즉 청소년의 공격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 원인이 되는 공격신념 감소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 혹은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공격신념 측정 도구조차도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공격적인 행동 요소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소, 인지적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개념인 공격성(Buss & Perry, 1992)과 관련된 일부 측정 도구들이 공격신념을 유사하게,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특히 역기능적 사고나 자동적 사고 등 공격성과 관련된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그러하다. 그중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타당화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의 적대감 하위척도가 공격성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나는 때로 시기나 질투에 차 있다’ 혹은 ‘나는 지나치게 친한 척하는 낯선 사람을 보면 의심이 든다’ 등이다. 하지만 이 척도는 공격성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격행동을 지지하는 공격신념 측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서수균(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적대적 자동적 사고 척도(Hostile Automatic Thought Scale-Korean version: HAT-K)’도 공격성과 관련된 인지적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적대적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며, 신체적 공격성, 타인비난, 보복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보복 하위척도에서 공격신념과 유사한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공격신념 관련 척도는 김은정과 하은혜(2008)가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역기능적 인지도식 척도(Korean Adolescent's Dysfunctional Schemas Questionnaire: K-DSQ)’이다. 이는 우울 도식, 불안 도식, 공격성 도식의 3개 하위척도로 우울, 불안, 공격성 집단을 선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공격성 도식 하위척도는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가므로, 오직 강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혹은 ‘나는 주변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한다’ 등 공격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인지도식을 측정하고 있으며, 일부 공격행동을 정당화하는 신념 측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문경주, 오경자와 문혜신(2002)이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Korean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K-CATS)’는 우울 인지, 적대적 인지, 사회불안 인지, 신체적 위협 인지의 4개 하위척도로 아동, 청소년의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고 있다. 하위척도들 중 적대적 인지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나도 그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등 보복심이나 적개심과 관련된 인지를 포함하여 공격행동을 지지하는 공격신념을 유사하게 측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격신념을 유사하게 측정하는 도구는 존재하지만, 그 대상이 성인이거나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인지를 측정하는 도구 안에서 공격신념을 일부 측정하고 있다. 공격신념을 포함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어린 시절의 중요 경험들을 통해 형성되고 지속되는데 반해(서수균, 2009),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인지는 유발사건을 통해 활성화된 비합리적 신념으로 생성된 일종의 인지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Ingram & Kendall, 1987). 따라서 공격신념 측정도구는 자동적 사고나 역기능적 인지 측정도구와 구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격신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신념을 측정하는 도구는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은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이 차이가 있어, 일부 연구들은 이 시기를 나누어 연구하고 있다(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한세영, 2007). 즉 초기 청소년기에서 후기 청소년기까지 외현적 공격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김동기, 홍세희, 2007),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많아진다고 보고하였다(박민정, 최보가, 2004). 따라서 공격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

과 후기 청소년은 구별되어야 하며, 관련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도 시기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공격성이란 행동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인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Buss & Perry, 1992) 공격행동을 일으키는 인지적 요인인 공격신념 또한 광범위하게 공격성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 시기별로 달리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 시기를 구분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 바, 성인기까지 공격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은 후기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와 측정 도구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Slaby와 Guerra(1988)의 공격신념 연구에서는 지적기능과 읽기수준 등 인지발달을 고려한 만 15세를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었고, 그 이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Slaby와 Guerra(1988)가 개발한 공격신념 척도(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를 한국어로 번안한 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5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다.

Slaby와 Guerra(1988)가 개발한 공격신념 척도는 공격행동을 지지하는 공격신념을 세부적인 하위척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척도는 반사회적 공격성, 높은 수준의 공격성,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대상들을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외 공격신념 연구들은 대다수 Slaby와 Guerra(1988)가 개발한 공격신념 척도를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Slaby와 Guerra(1988)가 개발한 공격신념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K-DSQ의 공격성 도식 척도와 K-CATS의 적대적 인지 척도를 활용하여 공인타당도

를 알아보았다. 또한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Adolescent Behavior Assessment Scales for Self Report: ABAS-S)의 공격행동 척도와 잠재비행 척도(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 LDQ)를 활용하여 공격행동집단과 비행집단에서 한국판 청소년용 공격신념 척도(K-BSAS)의 점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의 공격행동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지역의 중학교 4개교, 인문계 고등학교 3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에서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1200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한 개 이상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경우, 학교 측에서 임의로 문항을 선택하여 설문한 경우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851부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인지 발달차이와 공격성 발달차이로 원척도와 같이 만 1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에 총 61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령의 범위는 만 15세에서 만 18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16.39($SD=1.00$)세였다.

측정도구

공격신념 척도(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

공격행동을 지지하는 청소년의 공격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Slaby와 Guerra(1988)는 공격신념 척도(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를 개발하였다. 이는 총 18문항으로 공격행동의 정당성(6문항), 자존감 향상(3문항), 부정적 이미지 탈피(3문항), 피해자에 대한 정당성(3문항), 피해자의 고통(3문항)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형 5점 척도의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Slaby와 Guerra(1988)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합치도는 공격행동의 정당성 $\alpha=.67$, 자존감 향상 $\alpha=.53$, 부정적 이미지 탈피 $\alpha=.68$, 피해자에 대한 정당성 $\alpha=.72$, 피해자의 고통 $\alpha=.37$ 이다. 또한 동일한 연구에서 10주 간격으로 얻어진 총점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Kendall의 τ 계수 .86이다. 본 연구는 내적합치도가 낮은 피해자의 고통 하위척도 3문항을 제외하여 총 15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한국판 청소년용 역기능적 인지도식 척도 (Korean Adolescent's Dysfunctional Schemas Questionnaire: K-DSQ)

우울, 불안, 공격성과 관련된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측정하고, 청소년의 인지왜곡을 통해

표 1. 연구대상의 연령, 성별 분포 (N=611)

연 령	남(%)	여(%)	전체(%)
만 15세	64(10.5)	74(12.1)	138(22.6)
만 16세	99(16.2)	97(15.9)	196(32.1)
만 17세	67(11.0)	112(18.3)	179(29.3)
만 18세	86(14.0)	12(2.0)	98(16.0)
전 체	316(51.7)	295(48.3)	611(100.0)

우울, 불안, 공격성 집단을 선별하기 위해 Leung과 Poon(2001)이 개발한 척도를 김은정과 하은혜(2008)가 한국판으로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우울 도식(4문항), 불안 도식(10문항), 공격성 도식(8문항)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판 타당화 과정에서 총 30문항에서 총 22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도식 하위척도 8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채점하며, 총점의 범위는 8점부터 32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alpha=.78$ 이다.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 척도(Korean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s: K-CATS)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Schniering과 Rapee(2001)가 개발한 척도를 문경주, 오경자와 문혜신(2002)이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타당화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전혀 없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 타당화 연구(문경주 등, 2002)에서 32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우울 인지(우울이나 개인적 실패 관련), 사회불안 인지(사회적 위협 상황에 대한 불안감 관련), 신체적 위협 인지(신체적 위협 상황에 대한 불안감 관련), 적대적 인지(보복심이나 적개심 관련)의 4개 하위척도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하위척도에서 적대적 인지 척도 6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총점 범위는 0점에서 24점이며, 적대적 인지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alpha=.77$ 이다.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청소년용(Adolescent Behavior Assessment Scales for Self Report: ABAS-S)

국내 청소년들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문제를 평가하고, 임상적 진단보다 일반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문제를 사전판별하기 위해 이해경, 신현숙과 이경성(2008)이 개발하고, 표준화하였다. 이는 인터넷 중독문제(14문항), 섭식문제(12문항), 가족관계문제(15문항), 또래관계문제(15문항), 교사관계문제(11문항), 학업/주의문제(12문항), 진로문제(10문항), 공격행동(13문항), 지위비행(11문항), 범죄성 비행(13문항), 충동/과다행동(6문항)의 11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행동 하위척도 13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0점(전혀 그런 적이 없다)부터 3점(항상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채점하며, 본 연구에서 표준화한 점수의 내적합치도는 $\alpha=.87$ 이다.

잠재비행 척도(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 LDQ)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 성향을 평가하는 도구로 비행집단을 선별하기 위해 김정원과 오경자(1993)가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총 25개의 비행항목을 제시한 후 각 항목에 대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1점(없다), 2점(한두번 있다), 3점(서너번 있다), 4점(대여섯번 있다), 5점(많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하므로 총점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본 연구에서 원점수 내적합치도는 $\alpha=.85$ 이다.

하지만 김정원과 오경자(1993)는 각 문항에서 평가하는 비행의 범위가 넓고, 비행행동

간 심각도가 동등하여 가중치 적용방식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가중치 적용방식으로 잠재비행 점수를 다시 산출하였다. 가중치 적용방식이란 본 연구가 수집한 자료에서 척도의 25개 항목 각각에 대해 평균치를 구하여, 이 평균치를 각 문항의 최고 점수인 5에서 뺀 값으로 가중치를 삼고, 이 가중치를 원 점수에 곱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빈도가 낮은 항목은 높은 가중치를, 빈도가 높은 항목은 낮은 가중치를 얻도록 계산되며(하은혜, 2006), 본 연구에서 가중치 계산에 의한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alpha=.86$ 이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Slaby와 Guerra(1988)가 제작한 공격신념 척도(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의 원문항을 번안하였다. 영어로 된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할 때는 역번안 기법을 사용하였다. 1차 번안은 외국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을 하고 있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대학생 1인과 연구자가 함께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그리고 영어문화권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중언어자(bilingual)가 1차 번안된 문항을 영어로 역번안하였다. 다음은 영어를 구사하는 원어민 3인이 원문항과 역번안된 문항의 동질성을 7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평균 4점 이상으로 평가된 문항들을 채택하였다. 4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던 한 문항은 1차 번안과 역번안의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를 찾아 수정한 후, 원문항과 역번안의 동질성 평가과정을 반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학 분야 교수의 검토 후 공격신념 척도는 최종 15문항으로 결정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는 각 학급 담임교사가 질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연구자가 교사에게 연구주제 및 의의를 전달하였으며, 검사의 주의사항 및 소요시간 등을 미리 숙지시켜 협조를 요청하였다. 검사의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자료분석

SPSS 20.0을 통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주성분분석, 사각회전(oblimin)으로 요인구조를 탐색하였다. K-BSAS의 성별과 연령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K-DSQ의 공격성 도식 척도, K-CATS의 적대적 인지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또한 공격 행동집단과 비행집단에서 K-BSAS의 점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BAS-S의 공격행동 점수 T점수 60점(또래에 비해 높은 공격행동 수준)을 기준으로 공격행동집단과 일반집단을 구분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LDQ를 사용하여 상위 10%를 기준점으로 비행집단과 일반집단을 구분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K-BSAS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다.

결 과

K-BSA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에 앞서 KMO 표본 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값은 .867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2017.556($p < .001$)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요인추출 및 회전방식은 주성분분석과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한 사각회전(oblimin)방식을 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선택 기준은 고유치(eigenvalue)가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4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산출된 고유치, 누적분산 비율, 스크리 검정(scree test)과 외국 사례를 고려했을 때, K-BSAS의 가장 적절한 요인의 수는 3개였다. 제 1요인에는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을 측정하는 5문항이 부하되었고, 제 2요

인에는 공격행동의 정당성을 측정하는 4문항이 부하되었으며, 제 3요인에는 피해자에 대한 정당성을 측정하는 2문항이 부하되었다. 원척도 15문항 중 제외된 두 문항 1번(만약 누가 먼저 나를 때린다면, 나는 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과 9번(잘 싸우지 못하는 남자는 정말 연약한 계집아이 같다)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 추출값이 .40보다 낮았고, 다른 두 문항 4번(만약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과 8번(만약 내가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다면, 나는 누군가를 때려도 괜찮다)은 원척

표 2. K-BSAS의 주성분분석 결과 (N=611)

문항	요인부하량		b_2
	요인1	요인2	
요인1.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12.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센지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77	.05	.52
13. 만약 내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친구가 없을 것이다.	.75	-.01	.41
2. 만약 내가 싸움을 많이 한다면, 모두가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71	.02	.47
7. 인기가 있으려면, 나는 폭력을 좋아해야만 한다.	.68	.03	.48
3. 만약 내가 싸움에서 물러난다면, 모든 사람은 나를 겁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66	-.06	.40
요인2. 공격행동의 정당성			
15.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다.*	-.05	.76	.48
11.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07	.67	.63
10. 누구도 살해당할 이유가 없다.*	-.07	.65	.56
6. 누가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12	.63	.55
고유치(eigenvalue)	3.12	1.41	
설명변량(%)	34.68	15.70	
누적변량(%)	34.68	50.39	

* 역으로 채점되는 문항임.

도에서 공격행동의 정당성을 측정하는 요인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 묶여, 이론적 근거에 부합되지 않아 제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9문항이 제 1요인과 제 2요인으로 묶였고, 제 3요인으로 묶인, 피해자의 정당성을 측정하는 두 문항 5번(싸움에서 맞는 사람은 보통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과 14번(만약 누군가가 맞거나 깊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보통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은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가 $r=.12(p<.01)$ 와 $r=.31(p<.01)$ 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내적합치도가 $a=.37$ 로 역시 낮아 제거되었다. 따라서 K-BSAS는 최종 총 9문항으로 결정되었으며, 주성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9개의 문항 모두 .4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지니고, 2요인으로 묶였으며, 이것은 전체 변량의 50.39%를 설명하였다.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공격신념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성별에 따른 K-BSAS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K-BSAS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의 공격신념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7.12, p<.001$).

둘째, 연령에 따른 K-BSAS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공격신념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474, p<.05$). 하지만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각 연령별 공격신념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위척도 간 상관관계

K-BSAS의 하위요인은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공격행동의 정당성 요인이다. K-BSAS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상관계수는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K-BSAS의 하위척도인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과 공격행동의 정당성은 $r=.33(p<.01)$ 로 유의하였지만, 낮은 상관을 보였다. 총점과는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공격행동의 정당성이 각각 $r=$

표 3. 성별에 따른 K-BSAS의 차이 (N=611)

	전체	남학생 (n=316)	여학생 (n=295)	t
	M (SD)	M (SD)	M (SD)	
K-BSAS	18.08 (4.56)	19.30 (4.42)	16.77 (4.35)	7.12***

*** $p<.001$

표 4. 연령에 따른 K-BSAS의 차이

(N=611)

	연령				F	scheffe
	15세(n=138)	16세(n=196)	17세(n=179)	18세(n=98)		
	M(SD)	M(SD)	M(SD)	M(SD)		
K-BSAS	18.43(4.65)	18.41(4.58)	17.16(4.58)	18.58(4.19)	3.474*	

* $p<.05$

.80($p < .01$), $r = .82$ ($p < .01$)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공인타당도

K-DSQ의 공격성 도식 척도, K-CATS의 적대적 인지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하는 것으로 공인타당도를 측정하였다. K-BSAS는 총점으로 그 점수를 산출하므로 K-BSAS의 총점과 관련 척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Pearson 상관계수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K-BSAS의 총점과 K-DSQ의 공격성 도식 척도, K-CATS의 적대적 인지 척도와의 상관관계는 $r = .44$ ($p < .01$), $r = .40$ ($p < .01$)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격행동집단과 비행집단에서 K-BSAS의 점수 차이

ABAS-S의 공격행동 척도를 사용했을 때, T 점수 60점 이상이면 공격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8). 이 점수를 기준으로 공격행동집단과 일반집단을 구분한 뒤, K-BSAS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ABAS-S의 공격행동 척도를 적용하여 공격행동집단과 일반집단에서 K-BSAS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K-BSAS는 공격행동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 = -4.24$, $p < .001$).

LDQ 척도를 적용할 때, 상위 10%ile 이상이면 비행집단으로 간주한 선행 연구들에 따라, 상위 10%ile를 기준으로 잠재비행집단과 일반집단을 구분하였다(김은정, 하은혜, 2008; 하은혜, 2006). 잠재비행집단과 일반집단에서 K-BSAS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표 5. K-BSAS와 K-DSQ의 공격성 도식 척도, K-CATS의 적대적 인지 척도와의 상관관계 (N=611)

	K-DSQ의 공격성 도식	K-CATS의 적대적 인지
K-BSAS	.44**	.40**

** $p < .01$

표 6. ABAS-S의 공격행동 척도와 LDQ를 적용할 때, K-BSAS의 점수 차이 (N=611)

	K-BSAS		t
	M(SD)		
ABAS-S	공격행동집단 (n=58)	20.47(4.35)	-4.24***
	일반집단 (n=553)	17.83(4.51)	
LDQ	잠재비행집단 (n=61)	20.44(4.78)	-4.32***
	일반집단 (n=550)	17.82(4.46)	

*** $p < .001$

여 t-test를 실시하였다. LDQ를 적용하여 잠재비행집단과 일반집단에서 K-BSAS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K-BSAS는 잠재비행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 = -4.32$, $p < .001$).

신뢰도

K-BSAS의 내적합치도를 구하기 위해서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다. K-BSAS의 내적합치도는 $\alpha = .72$ 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는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공격행동의 정당성이 $\alpha = .74$, $\alpha = .61$ 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의 공격 신념을 평가할 수 있도록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Slaby와 Guerra(1988)가 개발한 공격신념 척도(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를 번안하여 재구성한 후 요인구조, 하위척도 간 상관관계, 공인타당도, 공격행동집단과 비행집단에서 K-BSAS의 점수 차이를 분석하고,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면, 원척도는 만 15세부터 만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강조한 이론에 따라(Mead, 193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 12세부터의 중학생을 포함하여 이 척도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더욱 폭넓은 대상이 본 척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집대상의 연령을 넓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포함하였을 경우, K-DSQ의 공격성 도식 척도, K-CATS의 적대적 인지 척도와의 공인타당도가 만 15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r=.38$, $r=.34$ 로 더 낮았다. 그 이유는 먼저 본 연구에서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K-DSQ의 공격성 도식 척도와 K-CATS의 적대적 인지 척도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K-CATS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적대적 인지에서 평균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K-CATS를 타당화한 문경주, 오경자와 문혜신(2002)은 그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밝히지 않았으며, K-DSQ의 공격성 도식 척도 연구도 역시 연령 차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김은정, 하은혜, 2008). 그러므로 K-CATS의 적대적 인지와 K-DSQ의 공격성 도

식의 연령 차이가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원저자인 Slaby와 Guerra(1988)가 만 15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학습장애가 없는 지적기능과 읽기수준 등을 기준으로 정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원저자가 원척도의 문항 개발 시 인지 발달을 고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본 연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쳐 한국판으로 개발된 본 척도도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척도의 연구와 같이 만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유용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의 인지 발달에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지 발달과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체제 간의 관계를 연구한 비교연구들은 크게 두 입장으로 나뉜다.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는 개인이든, 인간의 사고와 발달과정에서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는 입장(Cole & Gay, 1972; Dasen, 1972)과 발달의 과정에서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강조한 입장이 그것이다(Mead, 1934; Piaget, 1977). 그중 본 연구 결과는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의 사고과정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는 없으며, 논리적 사고 과정과 인과관계에 대한 추리 등은 다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Cole & Gay, 1972; Dasen, 1972).

또한,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 차이 역시 본 연구에 영향을 미쳐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만 15세 이상 청소년 공격 신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즉 초기 청소년기에서 후기 청소년기까지 외현적 공격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김동기, 홍세희, 2007)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어진 바, 초기 청소년기와 후

기 청소년기는 다른 공격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중에서도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은 구별하여 공격성 관련 척도를 사용해야 한다. 행동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인지적 요소가 포함된 공격성 개념 안에 공격행동의 원인이 되는 공격신념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만 15세를 기준으로 공격신념의 척도가 구별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공격성과 관련된 인지, 신념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보다 후기 청소년 관련 연구가 미비하므로 본 척도는 후기 청소년 공격성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K-BSAS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정당성을 나타내는 요인 두 문항(5번, 14번)이 문항-총점 간의 상관계수와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 계수가 낮아 제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요인과 문항 간의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두 문항(4번, 8번)과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 추출값이 낮은 두 문항(1번, 9번)을 제외하여 총 9문항으로 K-BSAS를 재구성하였다. K-BSAS는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과 공격행동의 정당성,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이 요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50.39%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거된 문항을 제외하고, K-BSAS의 하위요인 중 공격행동의 정당성 요인은 원척도의 문항과 동일하였다. 하지만 원척도의 자존감 향상 하위요인, 부정적 이미지 탈피 하위요인이 K-BSAS에서는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하위요인으로 통합되었다. 원척도의 자존감 향상 하위요인 문항은 ‘만약 내가 싸움을 많이 한다면, 모두가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인기가 있으려면, 나는 폭력을 좋아해야만 한다’ 이었으며, ‘만약 내가 싸움에서 물러난다면, 모든 사람은 나를 겁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내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친구가 없을 것이다’는 원척도에서 부정적 이미지 탈피 하위요인이었다. 원척도에서 자존감 향상 하위요인은 내적합치도가 $\alpha=.53$ 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이는 K-BSAS에서 자존감 향상 하위요인과 부정적 이미지 탈피 하위요인이 한 요인으로 통합 추출된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 문항들은 변별력이 낮아 각 요인을 단독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통성 추출값이 낮아 제외되었던 9번 문항 ‘잘 싸우지 못하는 남자는 정말 연약한 계집아이 같다’는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가 다소 모호해지거나, 다른 어감으로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번 문항 ‘만약 누가 먼저 나를 때린다면, 나는 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 5번 문항 ‘싸움에서 맞는 사람은 보통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 14번 문항 ‘만약 누군가가 맞거나 깊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보통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는 공격행동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기될 수 있으므로, 이는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문항을 표기할 때, 변별력을 떨어뜨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4번 문항 ‘만약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와 8번 문항 ‘만약 내가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다면, 나는 누군가를 때려도 괜찮다’는 원척도에서 공격행동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문항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요인으로 묶였는데, 이는 이론적 근거에 부합되지 않아 제외

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른 K-BSAS의 차이를 살펴볼 때, 성별에 따라 K-BSAS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신념이 더 높았다. 이는 Slaby와 Guerra(1988)의 연구에서 공격신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남성의 공격신념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같다. Slaby와 Guerra(1988)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즉, 남성은 여성보다 타인을 적대적으로 지각하여 문제정의를 하고 목표선택을 하며, 이 지각의 오류를 확인할 때 정보를 덜 탐색하는 경향이 있으며, 효과적이지 않은 1, 2위의 해결책을 선택한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은 적대적으로 지각한 타인에게 공격행동을 함으로써 보복 등이 효과적이라고 지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공격신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연령에 따른 공격신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라 공격신념 차이가 유의하였지만, scheffe 사후검증에서는 각 연령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연령에 따른 공격신념의 차이가 매우 미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Huesmann과 Guerra(1997)가 어린 유아들은 나이든 아동들보다 덜 안정된 신념들을 가지고 있고, 나이든 아동들은 공격성을 더 수용하는 신념을 가질 것이라고 한 것과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Huesmann과 Guerra(1997)의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부분의 청소년 공격신념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의 연령별 공격신념 차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동기 동안

발달한 공격신념이 아동기 이후에는 안정화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Souweidnane & Huesmann, 1999)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공격신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Huesmann과 Guerra(1997)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동안 공격신념의 증가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동안 공격신념은 얼마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느냐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이, 후기 청소년의 공격신념은 연령에 따른 차이보다, 공격행동을 얼마나 하느냐가 개인적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K-BSAS의 각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하위척도들과 K-BSAS 총점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았다. K-BSAS 총점과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하위척도 간의 상관관계는 $r=.80$, K-BSAS 총점과 공격행동의 정당성 하위척도 간의 상관관계는 $r=.82$ 를 나타냈다. 하지만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는 $r=.33$ 이었는데, 이는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하위척도와 공격행동의 정당성 하위척도가 전체 공격신념 척도 내에서 변별적으로 해당 공격신념을 측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격신념과 관련된 기존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K-DSQ의 하위척도인 공격성 도식과의 상관관계는 $r=.44$ 이었고, K-CATS의 하위척도인 적대적 인지와의 상관관계는 $r=.40$ 이었다. 본 척도는 기존 관련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공격신념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상관계수가 평이한 수준으로, 이는 Ingram과 Kendall(1987)이 설명한 자동적 사고, 역기능적 인지와 비합리적 신념의 엄밀한 개념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공격행동집단과 비행집단에서 K-BSAS의 점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평가척도들(ABAS-S의 공격행동 척도, LDQ)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일반집단과 공격행동집단, 비행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 간 K-BSAS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공격행동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공격신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행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공격신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Slaby와 Guerra(1988)의 청소년 공격신념 연구에서 반사회적 행동집단이 낮은 공격성 집단에 비해 인지적 기술 및 신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비록 Huesmann과 Guerra(1997)의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공격행동에 대한 아동의 규준신념이 실제 공격행동을 행하는 것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 손지영(2003)이 아동의 공격신념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극에 대한 대응으로 공격적 반응들을 더 많이 생성하고, 공격행동을 더 적합한 반응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공격행동을 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금주, 김하연과 윤진(1991)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 집단은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Guerra와 Slaby(1990)가 개발한 공격신념 감소 프로그램과 같이 공격행동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일곱째, K-BSAS의 내적합치도를 구하기 위해서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한 결과, K-BSAS의 내적합치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alpha=.74$, 공격행동의 정당성 $\alpha=.61$, K-BSAS 총점은 α

$=.72$ 로 나타났다. Slaby와 Guerra(1988)의 원척도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자존감 향상 $\alpha=.53$, 부정적 이미지 탈피 $\alpha=.68$, 공격행동의 정당성 $\alpha=.67$ 로, 본 연구 결과는 원척도의 하위요인 내적합치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척도의 총점 신뢰도는 10주 간격으로 얻어진 총점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Kendall의 τ 계수 .86으로 산출하였으므로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없었는데, 이에 본 연구는 추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통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 밖에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본 연구는 만 15세 이상을 연구대상으로 연령별 차이를 보았는데, 만 18세 이상은 남학생 86명, 여학생 12명으로 성비가 불균형적이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신념이 더 높다는 본 연구결과에 따라, 남학생이 더 많이 표집된 만 18세의 불균형적 성비는 만 18세의 공격신념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민정과 도현심(2001)이 남학생은 외현적 공격성을, 여학생은 관계적 공격성을 더 전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는데, K-BSAS는 주로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는 여학생 공격신념 점수보다 남학생 공격신념 점수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척도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표집이 서울, 경기, 경북, 경남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으므로, 추후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척도는 청소년의 인지 발달과 공격성 발달의 차이로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에는 만 15

세 미만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공격신념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의 공격신념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격성 발달 특징은 그 이전 연령의 청소년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두드러진다고 앞서 논의되었으므로, 추후에는 이 연령의 공격성 발달 특징과 공격신념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타당성을 밝혔으며, 이 척도가 공격행동집단과 비행집단을 선별하는 도구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공격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 (1993).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1), 15-35.
- 곽금주, 김하연, 윤진 (1991). 청소년의 반사회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간의 관계(I)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차이에 대한 탐색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45-156.
- 김동기, 홍세희 (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은정, 하은혜 (2008). 한국판 청소년용 역기능적 인지도식 척도(K-DSQ)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66-567.
- 김재엽, 이효정, 강민지 (2007). 가족응집력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6), 173-201.
- 김정원, 오경자 (1993).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 인지적 몰락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26-141.
-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 도금혜, 최보가, 이지민 (2006).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에 따른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대한가정학회지, 44(2), 1-11.
- 도기봉(200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대한 공격성과 충동성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2, 5-34.
-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 척도(K-CAT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55-963.
- 박민정, 최보가 (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 서수균 (2007). 한국판 적대적 자동적 사고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533-544.
- 서수균 (2009).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695-708.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손지영 (2003). 공격신념, 사회정보처리, 정서조

- 절능력과 공격행동 간의 관계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이동학회지*, 23(3), 79-90.
- 윤리라 (1999).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정보처리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8). 행동평가척도-청소년용: 청소년 상담을 위한 활용.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하은혜 (2006). 청소년기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내용특수성 검증: 내재화 장애와 외현화 장애를 변별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429-447.
- 한세영 (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Andreas, J. B., & Watson, M. W. (2009).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aggressive beliefs and their aggression trajectorie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 189-205.
-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ole, M., & Gay, J. (1972). Culture and memory. *American Anthropologist*, 74(5), 1066-1084.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Dasen, P. R. (1972). Cross-cultural Piagetian research: A Summar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 29-39.
- Dodge, K. A. (1986). A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 18, pp. 77-125). Hillsdale, NJ: Erlbaum.
- Dodge, K. A., & Price, J. M. (1994).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socially competent behavior in early school-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 1385-1397.
- Farrington, D. P. (1978). The family backgrounds of aggressive youths. In L. A. Hersov., & M. Berger,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Oxford Pergamon Press. Crawford, Cohen Midlarsky & Brook.
- Guerra, N. G., & Slaby, R. G. (1990).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2. Interven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269-277.
- Huesmann, L. R. (1988).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4, 13-24.
- Huesmann, L. R., & Guerra, N. G. (1997).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408-419.
- Ingram, R. E., & Kendall, P. C. (1987). The cognitive side of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523-536.
- Leung, P. W. L., & Poon, M. W. L. (2001). Dysfunctional schemas and cognitive distortion in psychopathology: A test of the specificity hypothesi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6), 755-765.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hrabian, A. (1997). Relations among personality scales of aggression, violence and empathy: Validation evidence bearing on the risk of eruptive violence scale. *Aggressive Behavior*, 23(6), 433-445.
- Osgood, D. W., Johnston, L. D., O'Malley, P. M., & Bachman, J. G. (1988). The generality of deviance in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81-93.
- Piaget, J. (1977). *The development of thought: equilibration of cognitive structures*. New York: Viking.
- Schniering, C. A., & Rapee, R. M.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The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 Slaby, R. G., & Guerra, N. G. (1988).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1.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80-588.
- Souweidnane, V., & Huesmann, L. R. (1999). The influence of American urban culture on the development of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in middle-eastern immigra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2), 239-248.
- 1 차원고접수 : 2012. 3. 3.
수정원고접수 : 2012. 5. 28.
최종게재결정 : 2012. 6. 8.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Adolescent's 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

Yu Jin Chung

Mee Sook Yoo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K-BSAS) of the 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 which was developed by Slaby & Guerra(1988) to measure the 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11 students ranging in age from 15 to 18 years from four junior high schools and four senior high schools in Seoul, Gyeonggi, Gyeongbuk, and Gyeongnam. They were assessed by the Korean translation of 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 Korean Adolescent's Dysfunctional Schemas Questionnaire (K-DSQ), Korean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s (K-CATS), Adolescent Behavior Assessment Scales for Self Report (ABAS-S), and 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LDQ).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9 items excluding the reverse-scored items extracted two factors which accounted for 50.39% of the total variance.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effect of gender on the K-BSAS. Male student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did female students on the K-BSAS.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age. Third, the Pearson's correlation showed that the increase of self-esteem/positive image subscale and legitimacy of aggression subscale were positively related to each other. Total scores of the K-BSAS also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increase of self-esteem/positive image subscale and legitimacy of aggression subscale. Fourth, the K-BSAS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K-DSQ and K-CATS. Fifth, mean score of the K-BSA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ggressive groups and delinquent groups than the nonaggression groups and non-delinquent groups. Sixth, internal consistencies (α) of the K-BSAS were good: $\alpha = .74$ for the increase of self-esteem and positive image subscale, $\alpha = .61$ for the legitimacy of aggression subscale, $\alpha = .72$ for the total score of the K-BSAS.

Key words : K-BSAS, 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Beliefs, Validation